



미츠이 스미토모, 아시아 생명보험시장 진출 가속화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의 미츠이 스미토모 보험그룹은 인도의 유력 기업인 맥스인도그룹(Max India Limited) 산하 생명보험 회사인 맥스뉴욕생명(Max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Ltd.)¹⁾ 지분 26%(약 450억 엔)를 4월 12일 취득하였고 인도 현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.²⁾

- 이는 미국 뉴욕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26%를 인수한 것이며, 인도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최대 투자 한도 수준임.
- 이번 지분인수로 태국, 중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시아 생명보험시장 진출국을 5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, 인도에서 생명보험사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임.

■ 약 12억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는 실질GDP 성장률 8%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세도 가속화되고 있음.

- 인도의 생명보험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4%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, 2010년 생명보험 침투율³⁾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.4%에 불과하고 젊은 세대 비중이 높아 향후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최근 인도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부유층 고객과 더불어 인도 진출 다국적 기업의 생명·연금 보험 수요가 더해져 퇴직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합한 상품 등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음.

(요미우리 신문 외, 4/13)

1) 맥스뉴욕생명은 2000년 뉴델리에 설립된 인도 7위(시장점유율 6.6%)의 생명보험회사로 약 7천여 명의 임직원과 43,692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음. 주요 판매채널은 전속 개인대리점이며 종신보험과 같은 전통 생명보험 상품(57%)과 변액보험(43%)등을 판매하고 있음.

2) 인도의 최대 생명보험회사는 국영 생명보험회사인 LIC(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)로 생명보험시장의 약 70%를 차지하고 있음. 이외의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로는 LIC, SBI 라이프, ICICI 푸르텐셜, 바자즈 알리안츠, 릴라이언스 라이프, HDFC 스탠다드, 맥스뉴욕 등이 있음.

3) 국내총생산(GDP) 대비 보험료 수준이며 2010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본은 세계 8위(8.0%)임.